

설 추모 예배 순서

주후 2019년 2월 5일 화요일 (음 1월 1일) 아침

사회: 담당자

목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목도함으로 고(故) _____ 를 추모하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함께
찬송	보이라 즐거운 우리 집(새235장 통222장)	다함께
기도		가족중
성경봉독	히브리서 11:13-16	가족중
추모의 말씀	본향을 찾아가는 삶	담당자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새435장 통492장)	다함께
추모사	고인에 대한 덕담과 간증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대표
기도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2019년도 설 추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함께

- 추모의 말씀(Message) -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아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건국의 도로는 귀성 인파로 인해 북새통이 됩니다. 명절에 고향 가는 길은 쉽지 않지만,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떠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적인 고향과 함께 영적인 고향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영적인 고향! 그곳은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천국 본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늘 위의 고향, 본향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며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15-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을 나그네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야곱도 고향을 떠나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족장들은 고향에 정착하지 않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고 천국에 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을 고향으로 둔 나그네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삶을 살며 최대한 짐을 줄이는 것이 지혜로운 나그네의 삶입니다. 세상의 소유에 집착하며 세상 근심 걱정으로 천국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비우며 오히려 그 빈 마음에 천국소망을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귀성길에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마음만큼은 늘 본향을 사모하며 그곳에 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우리 가족 모두가 돌아갈 본향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깨달으며 그곳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본향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13-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안전벨트를 매는 것입니다. 고향에 가기 위해 꼭 착용해야 하는 안전벨트와 같이, 천국 본향에 가기 위해 꼭 함께해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나라 천국 본향에 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안전을 담보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라는 안전벨트뿐입니다.

안전벨트는 평소에는 다소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이 세상의 삶에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믿음의 안전벨트는 천국 본향으로의 입성을 지켜주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구약의 족장들은 믿음을 따라 하늘나라에 들어갔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안전벨트는 곧 영적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 땅에서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질 유한한 생명을 위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왜 영적 생명을 위한 안전에는 소홀해야겠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안전벨트를 착용함으로 천국소망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추모 예배 순서

주후 2019년 2월 5일 화요일 (음 1월 1일) 아침

사회: 담당자

목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묵도함으로 고(故) _____ 를 추모하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함께
찬송	보이라 즐거운 우리 집(새235장 통222장)	다함께
기도		가족중
성경봉독	히브리서 11:13-16	가족중
추모의 말씀	본향을 찾아가는 삶	담당자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새435장 통492장)	다함께
추모사	고인에 대한 덕담과 간증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대표
기도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2019년도 설 추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함께

- 추모의 말씀(Message) -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아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전국의 도로는 귀성 인파로 북새통이 됩니다. 명절에 고향 가는 길은 쉽지 않지만,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에게 또 다른 고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돌아갈 천국 본향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본향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그곳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또 다른 고향, 본향이 있음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15-16절 말씀을 보면)

가수 최희준씨가 부른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제목처럼 우리의 삶은 결국 모르는 곳으로 흘러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하더라도, 늘 돌아갈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시간이 끝나면 유한한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 모두는 영혼의 고향, 즉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혹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다는 듯 무관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종말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분명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세, 혹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음 너머에 또 다른 고향, 즉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 뒤에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있으며, 더 나은 본향이라 말하는 하늘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가족들은 먼 미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길 소망합니다. 또 다른 고향이 있음을 깨닫고 그 본향에 들어가는 날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둘째, 본향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13-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안전벨트를 매는 것입니다. 고향에 가기위해 꼭 착용해야 하는 안전벨트와 같이, 천국 본향에 가기 위해 꼭 함께해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나라 천국 본향에 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안전을 담보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라는 안전벨트뿐입니다. 안전벨트는 평소에는 다소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이 세상의 삶에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믿음의 안전벨트는 천국 본향으로의 입성을 지켜주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구약의 족장들은 믿음을 따라 하늘나라에 들어갔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안전벨트는 곧 영적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 땅에서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질 유한한 생명을 위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왜 영적 생명을 위한 안전에는 소홀해야겠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안전벨트를 착용함으로 천국소망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